지역 메아리

정읍 이평면 면민의 날 화합 한마당 축제 성료

제20회 이평면 면민의 날과 화합 한마당 축제가 지난 21일 이평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평면민의 날 추진위원회(위원장 조풍영) 주관으로 열린 행사에는 유성엽 국회의원과 김용만 시장 권한대행을 비롯 지역구 시의원, 출향인, 기관·단체장 등 약 50여명의 내외빈과 지역민등 모두 8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1부 기념식과 2부 화합한마당 축제로 진행됐다.

기념식에서는 시상식이 진행됐다. 면민의 장 시상에서는 애향장은 이종현(대전광역시)씨, 효열장은 이재순(창동마을)씨, 송숙희(돈지마을)씨가 수상했다. 또 김경애(소독마을)씨와 정연조(황전마을)씨가 시장 감사패를 받았다.

배들농악단의 신명나는 공연을 시작으로 막이 오른 행사에서는 투호 등 5개 종목의 민속경기가 이어졌다. 11개 리단위 대항으로 치러진 노래자랑에서는 면민들이 평소 갈고닦은 노래 실력을 저마다 맘껏 뽐냈다.

면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주민 모두가 한층 더 화합하고 소통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지역발전에 적극 동참해서 살기 좋은 이평을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600여명 대상 직무교육

정읍시는 지난 21일 정읍사 예술회관에서 지역 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600여명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가졌다.

교육에서는 김완진 전라북도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을 비롯한 3명의 전문가가 강사로 나서 아동학대와 성희롱 예방, 안전관리, 개인정보 보호 등을 주제로 강연했다. 또 응급처치와 심폐 소생술 등에 대한 이론과 실습 교육도 진행됐다.

보육교직원들은 "이번 교육을 통해 보육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행동에 대해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됐다."며 "보육과정이 한 아이의 인생을 결정짓게 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보육교직원으로서의 사명감을 되새기며 매 순간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시 관계자는 "어려운 보육환경 속에서도 아이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있는 보육교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수준 높은 보육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읍=김대환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동학정신 계승·발전 앞장

황토현동학농민혁명기념제 내달 12일~13일까지 정읍 황토현 전적지에서

올해로 51회째를 맞는 황토현동학농민혁명기념제가 5월 12일부터 13일(11일 사전행사 진행)까지 정읍 황토현 전적지 일원에서 열린다.

23일 정읍시에 따르면 정읍시가 주최하고 (사)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이사장 김영진, 이하 혁명계승사업회)가 주관한다.

'동학농민혁명으로 꿈꾸는 통일'이 슬로건(slogan)인 올해 기념제 테마는 '역사'이다.

계승사업회는 "기념제를 통해 정읍을 1894년 보국안민과 제폭구민을 기치로 일어났던 동학농민혁명부터 4.19혁명, 5.18혁명, 6.10항쟁, 그리고 2016년 촛불혁명으로 이어지는 혁명사(史)의 과정을 느낄 수 있는 교육놀이터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단순 즐길거리와 놀거리가 아닌 역사적 사실에 바탕을 둔, 교육적이면서도 전통문화를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중심의 기념제로 치른다는 방침이다.

행사는 크게 '역사교육의 장 정읍'과 '음악으로 만나는 동학농민혁명', '황토현에서 만나는 정읍'을 대 주제로 모두 19개 세부행사로 진행된다.

'역사교육의 장 정읍'마당에서는 동학농민혁명 관련 테마의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혁명 당시 닭둥우리에 짚을 넣어 적의 포탄을 막았던 것을 모티브(motive)로 해 만든 체험인 '장태 굴리기'와 혁명군의 주 무기였던 대나무를 활용한, 가상 전투 체험인 '죽봉전'이 진행된다.

'황토현성 쌓기'는 황토현 전투 당시 관군과의 전투를 앞두고 농민군이 성을 만들었다는 상황을 가정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음악으로 만나는 동학농민혁명'에서는 동학농민혁명을 주제로 한 김대성(작곡가)의 곡과 국내 최고의 레게밴드 노선택과 소울소스, 소리꾼 김율희가 2018년의 동학농민혁명을 노래한다.

사랑과 배려가 가득한 대동세상의 꿈을 그린 곡인 '사랑꽃'과 이름 없이 죽어간 동학농민혁명군들을 기리는 추모곡인 '검은 눈물'을 선보인다.

'정읍예술인한마당'에서는 우도농악의 거점인 정읍에서 활동하고 있는 무형문화재들이 농악과 판소리 공연을 펼치고, '우리가락 우리마당'에서는 시립정읍사국악단이 우리 소리와 가락으로 공연 한마당을 펼친다.

이밖에도 정읍지역 청소년과 공연자들이 직접 만드는 짱끼발랄 페스티벌'과 황토현의 황토를 테마로 한 체험프로그램인 '황토볼 체험'이 진행된다.

한편 기념제 주관단체인 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와 정읍시는 지난 23일 기념제 준비 상황 보고회를 갖고 기념제 전반에 대한 점검과 함께 기념제의 성공 개최를 위해 상호 협조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시와 계승사업회는 "올해 기념제는 '추모'에 중심을 두고 있다."며 "그 어느 해 보다 의미가 있는 행사를 마련,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이자 성지로서의 정읍의 위상을 재확인하고 정읍인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동학정신을 한층 더 계승·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향토유물 수집 사업 기증 잇따라

고창군 아산면 전일재씨, 승유물 20여점 고창고인돌박물관에 기증

고창군 아산면 사신원마을에 사는 전일재씨가 최근 가승유물을 고창고인돌박물관에 기증했다.

전일재씨 집안은 고조 대부터 고창에 거주해 왔는데, 고창고인돌박물관에서 향토유물을 수집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고조부가 전해 준 가승유물 20여점을 고인돌박물관에 기증해 왔다.

전씨의 고조부는 사리에 밝고 학식이 풍부해 대한제국 시대에 중추원의 주임관을 지낸 인물로 중추원의관사 주임관육등(奏任官六等)의 관직에 이르렀다.

그러나 1910년 일제에 의해 국권을 빼앗기고 나라를 잃게 되자, 관직을 버리고 낙향하여 은둔하며 농사를 지으며 살았다고 한다.

전일재씨가 이번에 기증해온 유물은 고조부가 남긴 선사시대의 유물인 돌도끼 2점, 사령장인 칙명 등 고문서 2점, 백자발 1점, 소학집

설 등 고서 6점, 풍잠 1점, 상평통보 8점 등 20이다.

이보다 훨씬 많은 가승유물이 있었지만 개인적으로 관리하다보니, 100여년이 흐르면서 상당한 유물들이 훼손되거나 소실되고 말았다.

전씨는 일찍이 선조가 물려 준 유물이 더 이상 훼손되기 전에 박물관에 기증해야겠다고 생각해 왔지만, 마땅한 기회가 없어 보관만 하고 있다가 이번에 고인돌박물관 향토유물 수집 사업에 가승유물을 흔쾌히 기증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전일재씨는 "평소에 주변 사람들이 집안에 내려오는 가승유물을 손쉽게 처분하는 것을 보면서, 선조들이 남긴 문화재를 박물관 등 보존시설에 기증해서 우리 문화재를 지켜야지, 당장 눈앞에 작은 이익에 눈이 어두워 문화재가 사라져 가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해 왔다."고 말하면서, "앞으로 박물관에서 잘 보존하고 관리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문화재를 감상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창고인돌박물관 관계자는 "앞으로 이러한 값진 기증정신이 전파되고 이어져 보다 온전한 모습으로 선조들의 삶과 문화의 참 모습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정읍시보건소, 한방뱃살빼기 프로그램 운영

정읍시보건소가 한방뱃살빼기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 건강 정진에 기여하고 있다.

보건소는 "모든 성인병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는 비만에 대한 한의약적으로 접근을 통해 시민의 건강 증진은 물론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와 관련 보건소는 이달 16일부터 6월 22일까지(10주간/40회) 운동 부족과 잘못된 식습관 탓으로 당뇨와 고혈압, 심장질환 등에 걸릴 확률이 높은 비만자 40명을 대상으로 한방 뱃살빼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프로그램에서는 한의약적 비만관리와 영양 교육과 함께 전문강사의 체계적인 지도로 체지방 감량을 위한 근력 강화운동 등을 진행하며 한방진료도 실시하고 있다.

보건소는 특히 사업 참여 전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 체성분 검사 등을 실시하여 참여자들의 신체 상태를 파악한 후 참여 3개월 후 사후 검사를 통해 몸 상태가 어떻게 변화 되었는지 직접 확인토록 함으로써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건강에 대한 자신감을 가짐은 물론 개개인의 자가 건강 관리 능력 향상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

공원 내 무질서행위 사전예고 집중단속

국립공원관리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병채)는 23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공원 내 주요 불법 무질서행위에 대해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변산반도 국립공원사무소는 이번 사전예고 집중단속은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불법무질서 행위 근절을 위해 대국민 사전홍보 후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제도로써 공원자원 보존과 건전한 탐방문화 확립을 위해 국민의 자발적 참여와 인식개선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출입금지 위반, 음주, 흡연, 야생 동식물 채취 행위 등이며,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유종섭 자원보전과장은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통해 불법무질서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탐방 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부안=이옥수기자

도시민과 고창군민 간 지속적 교류 상생구조 구축

'고창인 큰잔치' 성료

역대 최대 규모의 메머드급 '고창인 큰잔치'가 22일 서울 잠실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제18회를 맞은 이번 행사는 박우정 고창군수, 최인규 군의장, 군의원, 고창출신 국회의원과 군민, 재경고창인 등 1만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대하게 개최됐다.

재경고창군민회(회장 김광중)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대화합이라는 기치 아래 'SNS밴드 1만 명, 잠실 1만 명, 홈페이지 10만 명'을 통해 고창의 농축수산물 판매를 촉진하고 고창의 명승고적 등을 널리 알림은 물론, 고창 업체들 간 유기적 네크워크 구축으로 도시민과 고창군민 간 지속적 교류의 상생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행사는 재경고창인과 고창군민의 화합을 통한 입장식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기념식을 통해 상호 교류의 지를 다지고, 고창 관광명소 등을 소개하는 오프닝 게임과 4개 종목의 운동회, 7080 콘서트를 통한 도시민과 농어촌 주민 간 상호 이해 증진의 장으로 진행됐다.

/고창=김영식기자